

# 진흙속의 진주 한 알 (8)

류복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1동)

이제 내 인생은 해질녘 붉게 물든 마지막 노을빛이 되어 산 능선 소나무 한 그루 사 이로 소리 없이 꺼져가는 해와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게 어둠을 향해 사라지지만 다시 떠오를 내일을 위해 어둠에 대한 깊은 사유와 함께 인욕하고 있으리라.

정녕 생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그 끝은 언제일까? 전도된 동상으로 끝물하던 내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아마 천년을 넘게 꿈틀거려온 것 같다. 나는 부처님과 함께라고 위로해 보지만 늘 그렇듯 내 자신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다. 무상(無常)의 체질이 수행이고 수행의 방편이 무상이라면 무상을 체득하는 이 과정은 틀림없이 인욕으로써 극복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이 동반되어 있으나 선택할 권한은 없다. 다만 되고 싶은 방향으로 뜻을 세워 노력한다면, 행복은 노력한 사람들의 몫이 될 뿐이다.

나는 흑백논리의 날카로운 성격을 지녔었다. 심지어 친정아버지는 나를 '독일 여군'에 비교하실 정도였다. 그대도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나 유난해 친구들이 '현대판 신사임당'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나는 내 성격이 날카롭고 예민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 못했고, 그로 인해 몸이 많이 아팠다. 정신적인 피로에 못 이겨 삼일씩, 열흘씩 누워 있는 것이 예사였다. 그래도 몸을 이기려고 커피는 하루에 몇 잔을 마셨다. 그러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몸은 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절의 강건주 보살이라며 노보살님 한 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

그 보살님은 나를 자세히 보시더니 생년 월일을 물으시고 또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면서 '절에 좀 다녀라'고 하셨다. 그리고 며

칠 지나 노보살님은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셨다. 그 스님은 나를 보고 직업을 가지라고 하며 3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했다. 그리고 '절에 가려고 할 때 누가 와서 돈을 주며 일 좀 해달라고 해도 그 돈 받고 일하지 말고 곧바로 절에 가라. 그리고 반드시 진흙 속의 진주 한 알을 찾아서 인연있는 큰스님께 갖다 드려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왜 진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느 스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버린 것이다. 어차피 만날 인연이면 먼 곳에서 오시는데 점심이나 정성껏 지어드려야지 하고 서둘렀다. 잠시 후 보살님이 도착해 점심을 드신 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세월만 죽이고 있다"고 화를 많이 내셨다. 그리고 "스님 말씀대로 진흙속의 진주를 빨리 찾아 한 번 잘 살아보아야지" 하시며 내가 그다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하셨다.

나는 그냥 눈물만 났다.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나에게 내 목숨까지 거론하며 절에 가길 권하는 노보살

## 예민한 성격에 항상 몸 아파 누워 지내

## 노보살님 만난 후 생활불교 배우고 익혀

## 경전 읽으며 모두가 둘 아님 깨달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스님께서 "그날이 언제 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라고만 하셨다. 너무나 의문투성이었지만 스님도 노보살님도 강원도 사찰에 계시므로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내 자신도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흘러버렸다.

그렇게 일년 정도 지나서 노보살님이 다시 우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속으로 뜨끔하기도 하고 부답스러워서 두 아이를 데리고 동생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보살님은 오신다던 날에 안 오고 다음날 오셨다. 나는 꼼짝 없이 노보살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 처해

님이 싫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잠시뿐, 보살님은 나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겁먹지 말고 꼭 해라" 하셨다. 그때 나를 바라보는 보살님 눈빛이 너무나 자상하고 그 손은 너무 따뜻했다.

이렇게 나를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 준 보살님은 정작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 보살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 보살님은 돌아가시기전 백양사 강주 스님을 소개해주셨다. 그 먼 길을 한번씩 찾아갔는데 너무 말씀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아 죄송스러웠다. 여러모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

는 의욕이 몸과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또 백양사는 집과 너무 멀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집 근처 절에서 어떤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바느질 시봉도 하고 풀뿌리를 따서도 해보고 약도 지어드리면서 능력껏 형편껏 불교를 배우고자 했다. 또한 혼자 법문이나 책을 보고 듣고 읽으며 요점을 정리하고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며 배움을 익혀가는 과정이 5년간량 지났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생활이 부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처님 이야기로 끝맺게 되었다. 정보도 어디서 어떤 스님이 어떤 법회를 하고 언제 어느 절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교리도 체계적으로 배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경전을 볼 수는 없지만 교재용 단행본으로 나온 <초발심자경문>과 <처문> <서장> 등의 강의를 읽었다. 경전 강의를 읽다보니 차츰 법의 성품이 돌이 아니며 하나 속에 모두이며 모두 속에 하나임을 이해하며 승복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실망을 겪기도 했고 예민한 성격 탓에 슬픔도 컸다. 그러나 정말 부처님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영리하면 영리한 대로 응화현하시어 우리 곁에 오는 분이셨다. 내게 크나큰 가피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딸아이는 1994년에 대학 진학시험을 치렀다. 나는 대구 교대를 지원하길 원했으나 딸아이는 수능 성적이 부족하며 경북대 중문과를 지망했다가 떨어졌다. 믿지 못할 결과였다. 우리 집은 초상집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대이변이 생겼다. 대구교대 사상 최초로 성적미달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111명 추가모집을 하게된 것이다. 전기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 날이라 추가 모집에 삼천 명이 넘게 몰려들었다.

그때 내 딸은 마감시간 15분전까지 고등 학교에 있었고 나는 영남대 약학과에서 5명 추가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서를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다 왔을 무렵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다. 할 수 없이 딸에게 가보기 위해 차를 뺐다.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딸아이는 고개를 떨군채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딸은 나를 보는 순간 나에게 안기면서 쓰러졌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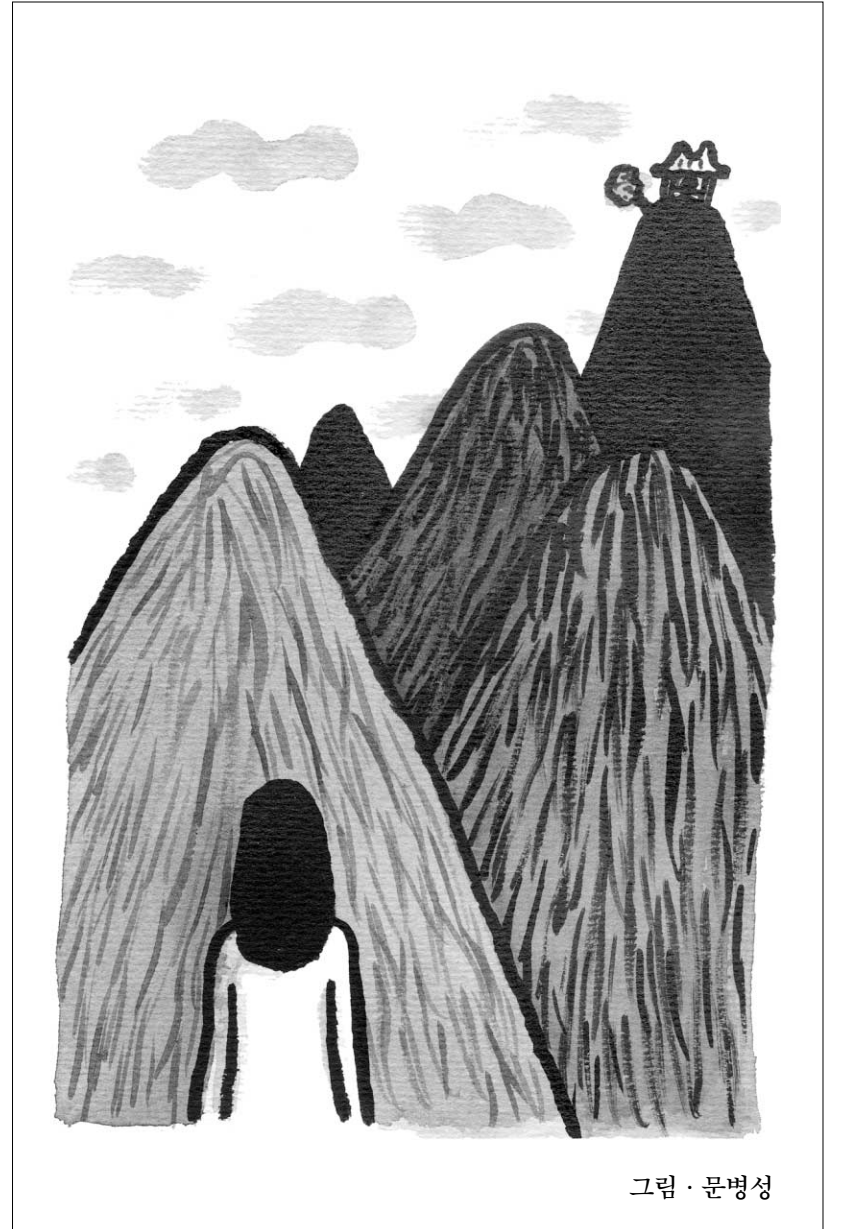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이 일어났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 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 총북지사	대전 / 충북	해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응전이 소실되었습니다. 뜻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왕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증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

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추천하는 것은 몇발을 거듭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중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동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 동참 목록**

- 아미타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수보살 : 일천만원 ● 보현보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희순 안희숙 최미자 안치영 고영인 유성용  
이동우 장현순 백병국 김진욱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